

광주신세계갤러리 신춘기획전 3월 30일까지

# 자연과 인간의 공존을 생각하다



김영태 작 '그림자 땅-캄보디아'



이현호 작 '아주'



최은정 작 'Tropical city'

'기상 이변의 시대, 인간과 자연의 공생을 생각하다.' 자연과 인간과의 관계를 조명하는 전시회가 열린다. 지구의 심각한 환경오염으로 기후변화를 넘어 기후위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자연은 어떤 의미인지 다시 질문을 던지는 기획이다.

광주신세계갤러리는 27일부터 오는 3월30일까지 신춘 기획전 '나와 자연 사이의 거리'전을 진행한다. 초대작가는 김영태·설박·권세진·이현호·최은정·전희경 등 6명으로 회화와 설치, 사진, 영상 작품 40여 점을 전시한다.

봄을 맞아 생명의 근원인 '자연'을 주제로 한 이번 전시는 그대로의 자연, 인간의 개입으로 변형된 인공의 자연, 우리가 꿈꾸는 자연을 표현한 작가들의 다양한 작품을 통해, 오늘날 '자연'에 대한 우리의 변화된 시각과 태도를 되돌아 볼 수 있는 기회다.

작가들은 우리의 원초적 삶의 터전인 '자연'을 다채로운 방식으로 사유했다. 평범한 일상 속 주변에서 벌어지는 미세한 변화와 현상을 먼 거리에서 관찰하고, 사색한 후 자신만의 독특한 작품세계로 표현해냈다.

설박 작가는 먹을 먹인 화선지를 해체하고 재조합한 산수화를 통해 송고한 대상으로 여겨진 자연의 에너지와 자연에 자신을 이입시킨다. 김영태 작가가 중첩된 산의 이미지를 몽환적 분위기로 연출한 사진 속의 자연은 그림자를 통해 그 존재감을 드러내며 자연의 품 안에서 체감한 개인의 기억을 소환한다.

권세진 작가는 동일한 크기의 작은 종이 위에 먹의 농담만으로 구성된 흑백 바다를 풀어놓는다. 작품은 먹과 물의 만남으로 생기는 우연의 효과가 표출하는 자연스러우면서도 과학적으로 균형 잡힌 자연의 모습을 보여준다.

이현호 작가는 매일 오가며 마주치지만 이름도 없는 녹색 숲으로 점점 침투해 들어오는 다양한 인공물에 대한 시각적·심리적 불편함을 치밀한 묘사로 보여주고 최은정 작가는 인간이 설계한 기하학적 구조물에 갇혀버린 나무의 모습을 화려한 색채감과 기하학적 구성으로 풀어낸 작품을 통해 인간의 숨겨진 욕망을 표현한다.

전희경 작가는 캔버스에 흠뻑 뿌린 다채로운 색채의 향연이 인상적인 작품 속에 현실과 이상 간의 괴리 안에서 절망하지 않고 또 다시 '봄'과 이상적인 '자연'을 소망하는 모습을 담아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소화누리 틸새미술 공모전



윤순현 작 '하늘가 꽃그늘'

작품 20점 선정, 윤순현 작 '하늘가...' 대상 양림미술관·틈새미술관·광주시청 등 전시

'아르브뤼(Art Brut)'는 '원생(原生, raw) 미술'을 뜻하는 말로 가공하지 않은 날 것 그대로의 순수한 미술을 지칭한다. 1945년 프랑스 화가 장 뒤뷔페가 다듬어지지 않은 순수하고 창조적 충동에 의해 작업하는 정신질환자들의 그림을 예술적 창작물로 인정하는 말로 처음 사용했다.

정신건강증진시설 소화누리는 광주지역 여성정신·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아르브뤼 작가 발굴을 위한 제3회 틸새미술 공모전을 개최했다.

이번 공모전은 여성정신·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증진을 위해 진행됐으며 총 20점의 작품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대상은 푸른 하늘가에 가을 단풍이 그네를 타고 있는 풍경을 그린 윤순현씨의 '하늘가 꽃그늘'이 받았으며 이지원 작 '나만의 정원', 김리 작 '신라 귀걸이를 한 한복 입은 나' 등이 입상했다.

수상작은 3월 중 양림미술관, 소화누리 틸새미술관, 광주시청 시민홀에서 전시할 예정이며 아르브뤼 작품으로 디자인한 아트랩프, 엽서, 수첩, 물병, 머그컵, 파우치, 손거울, 그림책 등 다양한 아트상품도 함께 만날 수 있다.

정한을 작가와 함께 공모전 심사에 참여한 주홍 작가는 "아픈 내면이 그대로 드러난 작품을 보며 먹먹한 순간도 있었고, 미술을 전공한 작가들보다 더 기술과 작품성이 뛰어난 작품에 감탄을 했다"고 말했다.

소화누리는 2017년부터 아모레퍼시픽,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을 받아 여성 정신장애인의 미술적 재능을 활용한 자립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아르브뤼 작가를 양성하고 작품 전시 및 아트상품을 판매해 정신장애와 더불어 여성이라는 취약성으로 취업에서 배제된 여성정신장애인들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한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롯데갤러리 '복된 삶이 길한 그림' 전 3월 18일까지 연장

## 수복강녕·부귀영화·입신양명 염원을 담아

소박한 그림 민화(民畵)는 민중의 삶이 진솔하게 배어 있는 장르다. 다양한 삶을 살아가는 인간이면 누구나 바라는 수복강녕, 부귀영화, 입신양명을 염원하는 마음이 스며 있는 작품에는 해학 역시 담겨 있다.

광주 롯데갤러리는 '복된 삶이 길한 그림'전을 오는 3월 18일까지 연장한다. 전시에는 광주전통민화협회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고재희·김명자·김명희·김수현·방은주·서은선·전미란·성현숙·이광자씨 등 9인의 민화 작가들을 초대했다.

이번 전시에서는 책장과 서책을 중심으로 각종 문방구와 골동품, 화훼, 기물 등을 그린 책가도를 비롯해 화려한 꽃과 나비가 등장하는 화조도, 장수를 기원하는 십장생도와 함께 부귀를 상징하는 모란도, 잡귀와 액운을 막아준다는 맹호도, 까치와 호랑이 등 친숙한 민화 작품을 만날 수 있다.

또 과거의 재현을 넘어서 참여작가들이 자신만의 시각으로 재해석한 다채로운 민화작품들도 전시된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 박상희 동화작가 창작집 '바스락 바스락 후드 통' 펴내



박상희 동화작가 창작집 '바스락 바스락 후드 통' (가문비 어린이)을 펴냈다. 모두 7편의 동화가 실린 작품집은 각기 다양한 생명이 행복하게 사는 꿈을 그렸다.

표제작 '바스락 바스락 후드 통'은 마땅히 살 만한 곳을 찾지 못한 새들이 후드 통에 모금자리를 마련한다. 영재네 가족은 위험한 후드 통에 집을 짓고 사는 참새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한다. 영재네 가족은 끝까지 희망을 버리지 않고 새들의 생명을 구한다.

'바위 소나무'는 죽을 고비를 맞이한 막내 소나무 씨앗에 대한 동화다. 형들은 썩썩 잘라 예술적 창작물로 인정하는 말로 처음 사용했다. 영재네 가족은 끝까지 희망을 버리지 않고 새들의 생명을 구한다.

또한 '김치 향아리'는 갖은 양념들이 어우러져 땅속에서 숙성된 묵은 김치를 소재로 했다. 가족들은 돌아가신 할머니가 담긴 5년 된 묵은 김치를 나눠먹으며 가족들의 진심을 알게 된다. 이밖에 환경오염으로 죽어가는 가랑이를 그린 '새들이 떠나면'은 환경에 대한 관점을 일깨운다.

박 작가는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 많은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일곱편의 동화"라며 "내가 먼저 누군가를 소중하게 생각하면 자연스럽게 서로 뜻이 통하게 되고 우리 모두 행복하게 살아가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



김수현 작 '꿈꾸는 방'

SINCE 1982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를 보세요”**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2015~2019 대한민국소비자대상 소비자브랜드부문 [5년 연속] 수상  
2016 미국 라스베이거스 CES 무선 액세서리 [혁신기술상] 수상  
2017 미국 빅 이노베이션 어워드 (BIG Innovation Award) [혁신상품부문] 수상

**국제보청기**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

**벤들리관광호텔**

2020년에도 “각종 연회 행사”는 **벤들리 관광호텔과 함께!!**

각종 “세미나, 가족모임(피로연, 칠순, 팔순 등)”을 최고의 서비스로 모십니다. 최고의 맛과 최상의 서비스로 아름다운 추억을 선사해 드리겠습니다.

대연회장(180명), 소연회장(30명), 스카이라운지(80명) 예약 운영

메약문의 062)236-5881~2  
찾아오시는 길 : 광주광역시 동구 서석로 10번길 5 (볼로동)